

# 한국전통문화전당 전국 율놀이 대회 개최

### 내달 5일 오후 1시 전당 야외마당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명절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로 인식됐던 율놀이가 정보통신기술을 더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거듭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016 전국 율놀이 대회>를 오는 11월 5일 오후 1시 전당 야외마당에서 연다.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54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한 사업이다. 전당의 율놀이 대회 프로젝트는 우연성과 전략 및 반전이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대중적 전통놀이라는 점

과 '모바일 예선전과 오프라인 본선전'을 통한 토너먼트 경기방식 등 놀이가 가지고 있는 재미의 요소를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전당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2016 전국 율놀이 대전'이라는 이름의 대회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오는 31일까지 예선전을 치르며 예선을 통해 많은 접수를 획득한 64개팀(2인 1팀, 총128명)이 본선진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전국 각지의 율놀이 고수들이 모인 본선 대회에서는 진출자 전원

이 전통 한복을 입고 64강부터 랜덤 토너먼트 32강부터는 대진표에 의한 경기를 치러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이번 대회에 우승팀에는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준우승과 3등에게는 70만원과 30만원, 그리고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김동철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율놀이는 옛부터 널리 퍼져 있었던 전통 대중놀이"라며 "옛 것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것으로, 국민놀이로서의 율놀이의 확산 보급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앞장서 나야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조준모와 전주교통방송 함께

###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콘서트

제8회 '10월의 마지막 잔잔 밤 콘서트'가 오는 30일 오후 5시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전주교통방송(FM102.5MHz) '출발! 전북대행진(오전7~9시)'의 진행자 조준모(48)씨가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기 위해 매해 열어 왔으며 이후 전주교통방송이 조씨의 선행에 동참하면서 방송국의 공식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이들과 함께 출연진들도 행사 취지에 공감하면서 작은 정성을 더한다. 종경가수인 민혜경과 김학래, 남궁옥분, 심신, 신계행, 심명기 등은 재능기부 형태로 공연무대에 올라 도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한다.

진행을 맡은 조준모 씨는 "깊어가는 가을 밤 가족들과 함께 교통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유자녀들을 돕는 콘서트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뜻깊은 행사에 재능을 기부해준 출연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전주시청 앞

### 오늘 오후에 시민 사은 축하 공연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주기접놀이' 시민 사은 축하공연을 펼친다.

이날 행사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전주극립무형유인원에서 진행된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해 열린다.

보존회는 이번 예술축제 무대에서 7·80대 원로 단원들까지 진창 속 맨발 투혼을 펼친 전주기접놀이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공연호응과 감동을 불러일으켜 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수상은 1970년 전주노악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46년 만의 쾌거다.

전주기접놀이는 1998년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를 설립하고 매년 대보름 백중정기공연을 펼쳐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도지상을 수상한 심영배 전주기접놀이 총감독은 "전주기접놀이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관계자,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 들을 비롯한 전주시민들에게 감사와 사은의 의미를 담은 공연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탈식민의 시각으로 보는 한국현대문학사' 저자

### 임명진 교수,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자 선정

불인김환태문학제제정위원회(위원장 전선자)와 문학사상사(대표 임흥민)는 제27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자로 전북대 임명진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환태평론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임명진 교수의 한국현대문학 연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문학사 서술을 체계화시킨 시도가 돋보인다고

그의 저서 '탈 식민의 시각으로 보는 한국현대문학사'는 '통합문학사' 수립이라는 문학사 연구 과제를 염두에 두고 1894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한국현대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일제 침략 하에서 그날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문학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전체상을 그려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부 한국현대문학사 서술의 기초, 2부 전개, 3부 식민지 근대의 모순적 전개, 4부 식민지 모순의 심화 및 개인의 발견, 5부 민족문화 건설의 모색과 좌절 등의 구성 체계를 통해 문학사 서술의 새로운 시도가 연구사적, 비평사적 의 미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명진 교수는 "김환태 비평 정신은 이제 '순수·예술'에서 '소신·개결'로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신·개결'에 주목해 문학비평활동을 하는데 있어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환태평론문학상은 한국평론문학의 공로자이자 일제강점기 순수문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1930년대에 크게 활약한 불인 김환태 선생의 문학적 업적과 삶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상식은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무용 불인문화관 영상실에서 개최되는 제8회 불인 김환태 문학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제8회 불인 김환태 문학제는 불인김환태문학제제정위원회와 문학사상사, 불인문화회가 주최·주관하고 무주군과 전북 문인협회, PEN 전북위원회가 후원하는 가운데 개최되며

제1부 기념식, 제2부 김환태평론문학상 심사평 및 시상식에 이어 제3부 김환태 모소 참배와 문학비 탐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계면조의 슬픈 가락에 기교를 실어 '산조의 날- 화조월석' 공연

###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오늘 저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오늘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산조의 날- 화조월석'을 공연을 선보인다. 우리말로 '출어진 가락'이라는 의미를 지닌 산조는 장구 반주에 맞추어 처음에는 느린 진양조로 시작해 점차 빠른 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 형식으로 바뀌며 진행되는 기악독주곡이다. 이러한 가락에는 복잡한 속에서 느껴지는 유기적인 자연스러움과 교묘함 속에서 느껴지는 강한

추진력이 깃들여져 있는데 이는 국악 장단만의 묘미다. 공연의 첫 번째 무대는 계면조의 슬픈 가락을 중심으로 복잡한 기교, 그리고 강한 즉흥성을 느낄 수 있는 '산관용류 가야금 산조'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무대에는 지영희의 피리가락을 기본으로 근대적 의미의 작곡개념을 도입하여 박명훈이 오선보에 작곡한 '박명훈류 피리산조'를 비롯해 경기시나위의 선율적 특성이 풍부한

지영희류 '해금산조', 잔잔한 선율에서 폭발적인 힘이 느껴지는 월장현류 대금산조'가 연주된다. 무대는 각기 다른 관현악기들의 매력을 선보이며 흥을 자아내는 '산조합주'로 마무리 된다. 목요국악예술무대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예약문의는 230-6840. /정해은 기자

### 잡일로 우리를 지치게 할 때 '그림자 노동의 역습' 신간 발간

삶은 더 바빠졌다. 하루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24시간인데, 어쩔 일인지 시간이 줄어든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차구니없게도 우리는 결코 자원하지도 않은 자질구레한 일을 하느라 매일 허우

적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일들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삶을 잠식하고 있는, 밑물처럼 밀려오는 '그림자 노동'이다. 크레이그 램버트가 쓴 책 '그림자 노동의 역습'은 그림자 노동이 무엇이고, 왜

생겨났으며, 사람들의 삶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노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휴대용 도감이다. '그림자 노동'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림자 노동' 때문에 할 일 목록은 길어지고 일상은 가중된다. 이현주 옮김, 330쪽, 1만6000원, 민음사 /뉴시스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0월 27일>

<p><b>▷쥐띠</b> 46년생: 타인과 화합은 어려우나 금전운은 따른다. 60년생: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따르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 72년생: 먼저 배풀어야 후에 들어오는 운이니 참고하라. 8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듣거나 마음 상할 일이 생기는 운.</p>	<p><b>▷소띠</b> 49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 61년생: 여성은 남자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긴다. 73년생: 모든 일을 조심하고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라. 85년생: 한쪽의 말만 듣고 편 가르키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짐작은 금물, 때로는 상황에 자신의 운을 맡겨보라. 62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74년생: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8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볼 볼 수 있으니 투기나 투자는 불리.</p>	<p><b>▷토끼띠</b> 5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운. 63년생: 남성은 여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7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어려움도 잘 넘어갈 것이다. 87년생: 동기끼리 함께 화합하는 일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p>
<p><b>▷용띠</b> 52년생: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64년생: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다. 76년생: 자신보다 약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88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p>	<p><b>▷뱀띠</b> 53년생: 다른 사람들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 65년생: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나기도 못하는 운. 77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일을 그려볼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생각하라. 89년생: 외면적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운.</p>	<p><b>▷말띠</b> 54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에 휘말리게 된다. 66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있으니 먼저 내보내라. 78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p>	<p><b>▷양띠</b> 55년생: 상황에 대한 권태를 느낄 수 있는 운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중간중간 악질이 생기는 운. 79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라. 9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는 운이니 주의하라.</p>
<p><b>▷원숭이띠</b> 55년생: 금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66년생: 문서에 결실이 비추니 빨리 움직이면 좋은 결과. 80년생: 급하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92년생: 익숙했던 일이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p>	<p><b>▷닭띠</b>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원행은 삼가라. 69년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81년생: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93년생: 동기끼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운이다.</p>	<p><b>▷개띠</b> 48년생: 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꺼내보라.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0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결과를 일으키고 높게 움직여라. 82년생: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p>	<p><b>▷돼지띠</b> 47년생: 시소한 욕심으로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59년생: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 덕으로 돌아올 것이다.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후한에는 다시 화합가능. 83년생: 초심을 잃지 마라, 막상 일만은 마음이 변하게 된다.</p>